

인류의 환경, 민족의 생명, 국민의 건강 쌀! 우리 쌀을 지킴시다.

민동욱 전국농민회총연맹 대외협력국장



중국에서 수입되는 '찐쌀'에서 표백제 성분인 이산화황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다고 한다. '쓰레기 만두'가 국민들의 식생활을 위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수입농산물에서 위해 요소가 발견된 것이다. 생각해보면 발암물질 들어있는 자몽, 볼트를 삼킨 조기, 꽃게, 광우병, 0-157 식중독 감염 쇠고기 등 대부분의 수입농산물은 거의 모든 품목이 약품 처리되어 수입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안타깝다.

수입농산물은 항상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위험성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94년부터이다. 바로 UR(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 의해 쌀을 제외하고 모든 농산물이 개방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10년 동안 수입농산물이 급증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6.9%이다. 이마저도 쌀을 제외하면 5% 미만인 현실이다.

수입농산물은 쉽고, 값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에 비해 그 안정성은 보장받을 수 없다.

언론에 보도된 수입농산물의 위험성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다. 밀가루에 과다한 표백제 투여로 별레도 살지 못 하고 죽었다는 사실이나, 수입과일은 채 익지 않는 과일을 방부제에 담가 수입되고 있다는 것은 쉽게 기억되지 않을 뿐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유전자조작식품(GMO)이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유전자조작 식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확인도 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이 '불안전한 식품 섭취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 주위에 퍼져있는 수입농산물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듯 농산물 수입에 따른 영향으로 국민의 건강문제를 떠올릴 수 있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바로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94년 UR협정 이후 증가하는 수입농산물로 인해 농민은 그 수가 절반 이상 감소했고,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도 수입농산물에 의한 가격폭락으로 농가부채가 쌓여 피폐한 생활을 하고 있다. 60세 이상 농민이 절반을 넘어서고 소득이 보장되지 못한 채 부채가 쌓여가는 농촌은 이미 유행화, 공동화 되어 가고 있다. 이처럼 농촌이 붕괴되면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할 토대를 잃어버리게 된다. 결국 앞으로 우리의 식량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국에 의존해야만 하는 무서운 현실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8억 1,500만 명이 굶주리고 있고, 1시간에 4천 명이 굶어 죽고 있다. 세계의 곡물의 생산량도 수요에 비해 점점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 초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2015년 이후 지구는 물과 에너지와 식량의 절대부족으로 전쟁이 발발할 수 있고, 물과 에너지와 식량을 장악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미 국방성의 비밀문서를 공개했다. 안정적인 식량공급의 불확실성이 우리 미래의 인권과

안보, 주권을 침해하게 될 수 있음을 가늠하게 한다.

우리 농업은 우리 민족의 생명을 유지시켜왔던 생명산업이다. 또한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홍수를 예방하고, 생물과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정부에 의하면 이러한 농업의 기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88조에 이른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에게 생명과 환경을 제공하는 농업이 지난 몇 년 동안 경제적 가치가 없는, 그래서 다른 공산품을 팔기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농업은 존재유무를 결정짓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있다. 바로 '쌀 재협상' 때문이다.

민족의 생명을 유지시킨 농업

지난 94년 모든 농산물이 개방되었지만, 우리의 주식인 쌀만큼은 천만 명 이상의 국민들의 쌀 개방 반대 서명과 의지로 개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런 쌀의 개방을 다시 유예하기 위한 협상이 올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쌀 재협상은 우리 쌀을 지키고 개방을 유예하기 위한 협상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협상태도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 하게 하고 있다.

최근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개방유예보다는 우리 농업에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쌀개방관세화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협상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협상에 임하는 것이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쌀 재협상은 협상단의 협상 결과에 대해 어떠한 국민적 동의절차나 확인 없이, 전 국민의 식량안보와 주권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농민들은 원하지 않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쌀을 지키고, 식량주권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지난 7월 13일 301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식량주권수호 범국민선언'을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서울의 66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9월 1일에 출범하게 되는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국민운동본부)는 94년 UR협정 이후 10년 만에 결성된 농업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대책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국민의 식량문제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 출범

국민운동본부는 쌀이 가지는 의미와 식량주권, 안보에 대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의 주요 거리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여성, 종교인, 교수, 법조인, 의료인 등 각계각층에서 '식량주권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자국에서 생산된 식량으로 전 국민의 5%만이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는가? 미국의 경우 133.5%, 영국 99.6%, 캐나다 162.8%, 프랑스 194.5%, 독일은 123%의 식량자급률을 갖고 있다. 가까운 일본도 2015년까지 식량자급률을 40%로 유지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자국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외국에 자국민의 목숨을 내맡기지 않고 주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운동본부는 전 국민적 여론에 기반하여 우리 농업, 농촌을 지키고 식량의 안보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국민운동본부는 식량자급을 위한 국제적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식량자급률법제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국민운동본부가 하고자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농민의 노력과 소비자만의 노

력으로 추진될 수도 없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자인 농민은 안전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적기에 적절한 가격의 농산물을 유통시키고, 소비자들도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식량자급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여기에 정부도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런 노력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

국민운동본부는 정부가 현재의 쌀 재협상처럼 밀실, 비공개 협상을 중단하고, 투명하게 농민과 국민의 동의를 거쳐 협상에 임하고 이에 따른 향후 대책 마련과 농업, 농촌회생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추진을 기존의 정부 기구가 아닌 범국민적 기구를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할 것이다.

오는 9월 10일은 머나먼 이국 땅 멕시코 칸쿤에서 "WTO가 농민을 죽인다"며 강대국의 개방 압력에 맞서 싸우다가 자결하신 농민 이경해 열사의 1주기가 되는 날이다. 이날 전국의 농민은 전국 각 시군에서 백만 명이 결집하여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한 집회를 가지려고 한다. 또한 이날 이경해 열사의 1주기를 맞아 전 세계 농민대표들도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이다. 방문을 하지 못 하는 농민들은 각 국에서 동시에 이날을 추모하며 전 세계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제공동행동의 날로 정하고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경해 열사 1주기

쌀은 우리 민족의 생성과 함께 시작하여 현재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쌀은 우리의 주식이다. 쌀은 곧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을 위해, 우리의 환경과 문화를 위해 국민운동본부의 활동에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http://www.ricekeep.org> 02-2068-9063